

불안정 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하 진 의*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불안정 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의도적 반추와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이상 일반 성인 가운데 외상 경험이 있고 외상에 대한 주관적 심각도가 평균치보다 높은 269명이다. 자료는 AMOS 20.0을 활용한 구조방정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불안정 애착이 의도적 반추를 완전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불안정 애착이 사회적 지지를 완전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안정 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시간강사.

넷째, 불안정 애착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안정 애착이 의도적 반추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외상, 애착, 외상 후 성장, 의도적 반추, 사회적 지지

I. 서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사고나 폭력 뿐만 아니라 부모나 배우자와의 사별, 가족이나 본인의 심각한 질병은 물론 학업 혹은 직업에서의 실패와 같은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들을 경험한다. 이러한 위기로 인하여 삶의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심리적 손상 혹은 고통을 외상(trauma)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외상 관련 연구들은 병리적 모델에 기반을 두고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손상을 치료하여 외상 이전의 수준으로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에 관심을 두었다.¹⁾

그러나 긍정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연구자들은 외상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성장에 이르는 과정인 외상 후 성장(PTG: Posttraumatic growth)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²⁾ 이들은 외상 경험 후에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기보다는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방식을 발달시키게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긍정적인 요소나 자원들을 증진시킴으로써 문제나 증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성장적 접근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1) Fairbank, J. A.·Ebert, L.·Costello, E. J., *Epidemiology of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D. J. Nutt·J. R. T. Davidson·J. Zohar (Ed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iagnosis, management*, 2000.

2) Helgeson, V. S.·Reynolds, K. A.·Tomich, P. L., “A meta analytic review of benefit finding and grow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 2006; Linley, P. A.·Joseph, S.,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1), 2004; Zoellner, T.·Maercker, A.,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sychology: A critical review and introduction of a two component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2006.

최근에는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들이 제시되고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Tedeschi와 Calhoun의 모형³⁾은 외상 사건의 경험을 통해 개인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기본 신념을 훼손하고, 개인은 그런 신념들과 목표들을 재건하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고 가정한다. 최근까지도 외상 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델들은 인지적 측면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인지적 개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지적되고 있다.⁴⁾ 즉, 역기능적 기억 체계, 자신 및 세상에 대한 역기능적인 부정적 평가, 그리고 자기-비난을 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인지적 과정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유지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⁵⁾

따라서 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의 예측변인 중 인지적 측면과 함께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서적 측면을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특히 정서는 애착관계의 중심영역이므로,⁶⁾ 외상 연구에서 외상 경험을 평가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애착은 주목할 만한 구성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가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상 경험의 과정에서 정서조절 기제로서 애착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지역 사회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와 정서적 유대 관계인 애착 관계를 통하여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인지, 타인이 반응적이고 접근 가능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지적 표상인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한다. 불안정 애착을 통해 형성된 역기능적인 내적 작동

3) Tedeschi, R. G.·Calhoun, L. G.,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 2004.

4) McMillen, H., "The adapting healer: Pioneering through shifting epidemiological and sociocultural landscapes". *Social Science & Medicine* 59(5), 2004.

5) Arikan, G., *The Role of Attachment in Emotion Regulation of Traumatic Stress*. University of Southampton, 2011.

6) Hazan, C.·Gur-Yaish, N.·Campa., "What does it mean to be attached?", In J. A. Simpson·W. S. Rholes (Eds), *Adult attachment*, New York: Guildford Press, 2004.

모델은 스트레스 사건의 대처에 대한 회복력을 줄이며 위기 상황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게한다. Mikulincer와 Shaver는 횡·종단 연구들과 임상·비임상 대상 연구들을 검토하여 불안정 애착이 다양한 정신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공통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⁷⁾

뿐만 아니라 불안정 애착이 정신병리로 진행되는 경로에서 다른 매개변인들이 애착 경험의 효과를 줄이거나 증폭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불안정 애착이 매개변인들을 거쳐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불안정 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매개변인들을 밝힘으로써 불안정 애착이 외상 후 성장을 저해하는 영향을 줄이고 바람직한 성장으로 발달 경로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적 작동 모델이 일종의 인지적 도식으로 대인관계에 작용을 한다는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외상 후 성장을 예언하는 요인들 중에서 인지적 과정인 의도적 반추와 사회문화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불안정 애착, 의도적 반추, 사회적 지지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경로를 설명하는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모형평가를 통해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는 것이다. 둘째, 불안정 애착, 의도적 반추,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상 경험 후의 긍정적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상담과 치료의 기초 연구가 되고자 한다.

7) Mikulincer, M.·Shaver, P. R.,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2007.

II. 이론적 배경

1.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성장이란 외상 사건이나 위기 사건 이후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말한다. 여기에서 성장이라는 개념은 기존에 개인이 지녀왔던 적응 수준 및 심리적 기능 혹은 삶에 대한 인식 수준을 넘어선 발달을 가정한다.⁸⁾ 외상 사건 후에 삶에 대한 감사가 증가하고, 인생의 주요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며, 자신에게 강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 또는 친밀한 관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⁹⁾ 외상 후 성장은 외상의 영향을 평가하고 외상 사건에서 생겨난 긍정적인 의미를 개념화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최근에 외상 연구자들은 외상 후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연구하려는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다. 외상 후 성장은 건강 문제, 재해, 지역 사회 폭력과 테러 공격, 상실, 어린 시절의 외상, 파트너의 폭력, 전쟁 등 대부분의 외상 유형에서 관찰될 수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외상 유형에 대한 외상 후 성장이 검증되면서 외상의 개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외상 후 성장에서의 외상이란 전쟁이나 재난, 테러와 같은 일생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강력한 사건뿐만 아니라 개인이 위협으로 지각하며 그로 인해 삶의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이나 경험 모두 외상으로 간주한다. 즉, Calhoun과 Tedeschi¹⁰⁾가 제안하는 바처럼 외상 개념은 사건 자체의 객관적 특성보다는 그에 대한

8) Zoellner, T.·Maercker, A.,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sychology: A critical review and introduction of a two component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2006.

9) Tedeschi, R. G.·Park, C. L.·Calhoun, L. G.,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issues", In R. G. Tedeschi·C. L. Park·L. G. Calhoun (Ed.). *Posttraumatic growth: Positive changes in the aftermath of Crises*, USA: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1998.

10) Calhoun, L. G.·Tedeschi, R. G., *Facilitating post-traumatic growth: A clinician's guid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9.

개인의 지각 및 그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 내지 일련의 경험들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상의 유형과 범주를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위기들로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Linley와 Joseph¹¹⁾은 지금까지의 외상 후 성장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성별, 학력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변인과 외상의 유형, 성격 및 강점 등의 개인적 특성과 외상 경험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인지적 과정이나 대처방식 같은 인지적 요소, 사회문화적 요소로서의 사회적 지지나 종교 및 영성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정서조절의 기제로서 작용을 하는 애착의 내적 작동 모델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처리과정과 대인관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외상 경험에서 불안정 애착이 인지적 대처로서 의도적 반추와 사회 문화적 요소로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변인을 거쳐서 외상 후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불안정 애착

Bowlby에 따르면 애착이란 돌봄과 기본적 욕구를 제공하는 주 양육자인 애착 대상과의 정서적 유대를 말한다. 위협과 불안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애착 대상은 근접성을 추구하게 하며 안전한 피난처와 안전 기지를 제공한다. 주 양육자와 유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유아는 세상, 타인들,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와 신념을 포함하는 정신적 표상 혹은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한다.¹²⁾

애착 대상인 주 양육자로부터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보살핌을 받은 유아는 자신에 대해 사랑받고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는 내적 작동 모델

11) Linley, P. A.·Joseph, S.,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1), 2004.

12) Main, M.·Solomon, J., "Discovery of an insecure-disorganized/disoriented attachment pattern.", In M. W. Yogman·W. Michael·T. B. Brazelton (Eds.), *Affective development in infancy*, Westport, CT: Ablex Publishing, 1985.

을 형성하게 되며, 타인에 대해 반응을 잘 해주고 신뢰할만하다는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더 나아가 호기심과 탐색의 증가, 환경적 지배, 더 자신감 있고 자율적인 형태로 자기 조절을 하는 등의 특징을 갖게 된다.¹³⁾ 반대로 주 양육자로부터 거절이나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거나 강제적인 양육과 일관되지 않은 반응을 경험한 유아는 자신에 대해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자신을 존중하기 못하는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게 되며, 타인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대해야하는 존재로 생각하며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여기는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최근에는 발달의 과정에서 주 양육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애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애착에 대한 전 생애적인 조망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Bartholomew와 Horowitz의 모델¹⁴⁾은 애착 유형들과 성인기 애착 관계를 자신에 대한 정신적 모델과 타인에 대한 정신적 모델 두 차원 모델로 구체화하였다. 한편, 사회심리학자들도 한 가지 유형으로 성인 애착의 복잡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애착을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인 애착의 두 차원이 보다 높은 설명력을 지닌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¹⁵⁾ 기존의 연구들에서 애착을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개인을 어떤 유형으로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애착을 단순히 유형이 아니라 애착의 불안정성을 불안과 회피 차원에 따른 독특한 개념으로 보는 것은 애착 성향을 차원에 따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애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Brennan, Clark 및 Shaver¹⁶⁾는 애착 척도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 애착

13) Lopez, S. J.·Snyder., C. R.,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PA:Washington, D. C, 2004.

14) Bartholomew, K.·Horowitz, L. M.,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1991.

15) Fraley, R. C.·Brennan, K. A.·Waller N. G.,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2000.

16) Brennan, K. A.·Clark, C. L.·Shaver, P. R.,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은 불안과 회피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를 지지하였다. 애착 불안은 버림받는 것과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타인의 인정과 승인에 대한 과도한 욕구 등을 의미하며, 애착 회피는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가까움과 의존성에 대한 불편함, 또는 자기 의존감에 대한 과도한 욕구 등을 의미한다. 불안차원과 회피차원 모두에서 점수가 높다는 것은 불안정 애착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애착은 사회적 유대에 대한 내적 기제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정서 조절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위협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외상과 같은 위협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의 내적 작동 모델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애착의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으로 측정하여 불안정 애착의 정도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3. 의도적 반추

반추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으로, 반추가 적응적인가 또는 부정적인가에 관한 논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반추의 개념이 각각의 연구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Calhoun과 Tedeschi는 삶의 위기에 따라오는 반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건에 대한 자동적이고 침습적인 반추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보다 의도적인 반추이다. 침습적 반추는 반추(brooding)와 유사하게 반복적이고 부정적이며 원하지 않는 사고로 규정되어 왔다. 반면에 의도적 반추는 반성(reflection)과 유사하게 사건을 이해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반복적이고 목적성이 있는 사고이다.¹⁷⁾ 많은 연구결과들이 침습적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W.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1998.

17) Calhoun, L. G.·Tedeschi, R. G.,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Expanded framework”, In L. G. Calhoun·R. G. Tedeschi (Eds.), *Handbook of*

반추는 우울증상 또는 불안과 같은 부정적 경험과 상관이 있고¹⁸⁾ 반면에 의도적 반추는 성장적 숙고, 성장적 반추 등으로 불리며, 외상 후 성장과 상관이 있다¹⁹⁾고 밝히고 있다.

의도적 반추는 외상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상 사건 떠올리기,²⁰⁾ 외상 사건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좋은 점 찾기,²¹⁾ 그리고 삶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생각하기²²⁾와 같은 인지적 과정들이 포함된다.

외상 경험 후의 의도적 반추와 같은 인지적 처리 과정과 그 과정 이후의 성장 경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ylor²³⁾는 외상 사건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인지적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이를 통해 성장이 나타난다고 제안한다. McCullough 등²⁴⁾과 Weinrib 등²⁵⁾의 연구에서 인지적 과정이 없이 성장을 보고한 사람들은 실제로 성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인지적 과정의 맥락에서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Mahwah, NJ: Erlbaum. Associates, 2006.

- 18) Nolen-Hoeksema, S.·Parker, L.·Larson, J., "Ruminative coping with depressed mood following 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994.
- 19) Calhoun, L. G.·Cann, A.·Tedeschi, R. G.·McMillen, J. C., "A correlational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religion, and cognitive process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 2000.
- 20) Barrett, T. W.·Scott, T. B., "Development of the grief experience questionnaire", *Suicide & Life Threatening Behavior* 19, 1989.
- 21) Carver, C. S.·Scheier, M. F.·Weintraub, J. K.,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989.
- 22) Yalom, L. d.·Lieberman, A., "Bereavement and heightened existential awareness", *Psychiatry* 54. 1991.
- 23) Taylor, S. E., "Adjustment to threatening events: A theory of cognitive adaptation", *American Psychologist* 38, 1983.
- 24) McCullough, M. E.·Root, L. M.·Cohen, A. D., "Writing about the benefits of an interpersonal transgression facilitates forgiven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 2006.
- 25) Weinrib, A.·Rohanson, N. E.·Johanson, E. L.·Lutgendorf, S. K., "The assessment and validity of stress-related growth in", 2006.

이루어진 성장이 실제적 성장이라고 하였다. McCullough 등은 글쓰기를 통한 중재 연구에서 외상에서 얻은 긍정적인 점에 대해 쓰도록 한 사람들이 중립적 주제나 외상 특징에 대해 쓴 사람들 보다 인지적 과정에 더 몰입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이 외상 사건에 대해서 유의한 점을 발견하려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성장이 일어난다고 제안한다.

높은 수준의 반추를 하게 되면 개인은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지각하게 해 주는 방식으로 도식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기회가 커진다.²⁶⁾ 개인은 외상 경험의 도전으로 인해 도식을 재구성하기까지 의도적 반추를 계속한다.²⁷⁾ 따라서 사건과 관련된 의도적 반추는 외상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로 이전의 핵심적 신념들을 이해하고 회복하거나 재건하고 수정하게 한다. 그리고 개인들이 얼마나 변화하였고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의도적 반추 과정을 통해 심각한 삶의 위기상황을 다루게 된다.²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상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보다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의도적 반추에 주목하여 그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타인들로부터 제공되는 자원을 일컫는 용어로서, 개인이 지닌 모든 사회적 관계망이나 지지적인 대인관계를 말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실제로 받는 것을 의미하고 객관적 지지와 지지자원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의미하는 지각된 지지로 구분

26) Tedeschi, R. G.·Park, C. L.·Calhoun, L. G.,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issues", In R. G. Tedeschi, C. L. Park, and L. G. Calhoun (Ed.). *Posttraumatic growth: Positive changes in the aftermath of Crises*, USA: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1998.

27) Tedeschi, R. G.·Calhoun, L. G.,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 2004.

28) Cann, A.·Calhoun, L. G.·Tedeschi, R. G.·Solomon, D. T., "Posttraumatic growth and depreciation as independent experiences and predictor of well-being", *Journal of Loss and Trauma* 15, 2011.

할 수 있다.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타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도 영향을 주며,²⁹⁾ 대처방식의 효율성과 심리적 신체적 안녕에 대한 예언적 역할을 한다.³⁰⁾

박지원³¹⁾은 사회적 지지를 사회구성원을 통하여 실제 상황에서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을 포함하며, 정보적 지지는 개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물질적 지지는 일을 대신해 주거나 그에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며, 평가적 지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포함한다.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수용하는데 회의적이며,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스스로를 지각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믿는다. 반면에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에 이용할 수 있는 지지에 만족해하며, 스스로에 대한 다양하고 긍정적인 귀인을 한다.³²⁾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강한 지지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지지의 완충 작용을 통해 잘 대처할 수 있어서 적응적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상 후 성장의 과정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9) Sarason, A. B.·Pierce, G. R.·Sherin, E. N.·Sarason, I. G.·Waltz, J. A.·Popper, L.,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orking models of self and actual o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001.

30) Cohen, S.·Rodriguez, M. S., "Pathways linking affective disturbance and physical disorders", *Health Psychology* 14, 1995.

31) 박지원,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32) 유희경,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5. 불안정 애착, 성장적 반추, 사회적 지지 및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안정 애착은 개인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상을 갖게 하여,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 정서를 다루고 건설적이고 적응적인 전략을 발달시키는 내적인 자원을 제공한다.³³⁾ 반면에 불안정 애착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상을 갖게 하여, 역기능적 대처를 하여 결과적으로 정신병리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 애착과 정신 병리의 관련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불안정 애착과 부정적 삶의 사건들이 정신 병리의 예언 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³⁴⁾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상 경험 이후에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발발에 안정 애착은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애착과 외상 후 성장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들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Salo, Qouta 및 Punamaki³⁵⁾는 안정 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이 고문 경험 이후에 더욱더 외상 후 성장을 보고한다고 밝혔으며, 반면에 Dekel의 연구³⁶⁾에서는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성장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애착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애착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매개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Mikulincer와 Shaver³⁷⁾가 불안정 애착 그 자체가 정신

33) Mikulincer, M.·Shaver, P. R., *Ment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security: Theoretical foundation for positive social psychology*, In M. W. Baldwin (Ed.), *Interpersonal cognition*, New York: Guilford Press, 2005.

34) McLewin, L. A.·Muller, R. T.,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in the prediction of psychopathology among young adults with and without a history of physical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30, 2006.

35) Salo, A. J.·Qouta, S.·Punamaki, R. L., "Adult attachment, post traumatic growth and negative emotions among former political prisoners", *Anxiety, Stress and Coping* 18(4), 2005.

36) Dekel, R., "Posttraumatic distress and growth among wives of prisoners of war: The contribution of husband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wives' own attachments", *Th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 2007.

37) Mikulincer, M.·Shaver, P. R., "An attachment perspective on psychopathology",

병리의 충분한 원인이 아니라 불안정 애착과 정신 병리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애착과 외상 후 성장 간에 다양한 매개 변인들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불안정 애착을 통해 형성된 역기능적인 내적 작동 모델은 외상 경험 후 부정적 감정을 촉진시켜 외상 사건에 대한 인지적 처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안정 애착을 통해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은 외상 경험 후 인지적 대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매개 효과를 줄 수 있는 중심적인 변인으로 인지적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외상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들은 개인이 의도적 반추를 더 할수록 그 상황에 대해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고 제안한다.³⁸⁾ 비록 애착과 의도적 반추와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없지만, 안정 애착은 안전한 피난처와 안정 기반을 제공하며, 생리적 각성을 조절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이러한 외부 세계는 물론 내적 세계를 탐색하는 능력을 촉진한다고 한다.³⁹⁾ 의도적 반추 역시 외상 사건을 이해하고 의미와 도움이 되는 점을 찾는 의도적인 인지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애착은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의도적 반추는 개인의 강점에 대한 각성이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감사를 증가시키며 외상 사건을 포함한 인생 전반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 외상 후 성장에 도달하게 하는 기제로 제시되고 있다.⁴⁰⁾ 따라서 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의도적 반추는 매개 변인으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애착과 외상 후 성장 간의 매개 변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

World Psychiatry 11, 2012.

38) Calhoun, L. G.·Tedeschi, R. G., *Facilitating post-traumatic growth: A clinician's guid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9.

39) Allen, J. G.,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2n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y Publishing, Inc, 2005.

40) Weinrib, A.·Rohanson, N. E.·Johanson, E. L.·Lutgendorf, S. K., "The assessment and validity of stress-related growth in", 2006.

는 변인은 사회문화적 변인인 사회적 지지이다. 내적 작동 모델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상은 외상 경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외상 후 사회적 지지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애착 유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⁴¹⁾ 애착은 각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방식과 외부세계와 내부세계에 관한 탐색 능력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정 애착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안전한 기반을 발견하고 성공적으로 가까운 관계들을 형성하는 개인의 능력을 만든다. 따라서 안정 애착이 다른 애착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지각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상태에 대한 예측과 안정을 가져다주고 자기 가치감을 높여주어, 부정적인 경험이나 심신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⁴²⁾ 따라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외상 경험에 따르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 지지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을 때 성장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Silver와 Wortman의 연구⁴³⁾에서 학대 후 생존자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보호받고 존중받는다느 느낌을 갖게 하였고 우울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재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자원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부적응적인 정서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외상 후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의 정서적 고통을 완화시켜 의도적 반추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실제로 Weiss⁴⁴⁾는 고통스

41) Brennan, K. A.·Clark, C. L.·Shaver, P. R.,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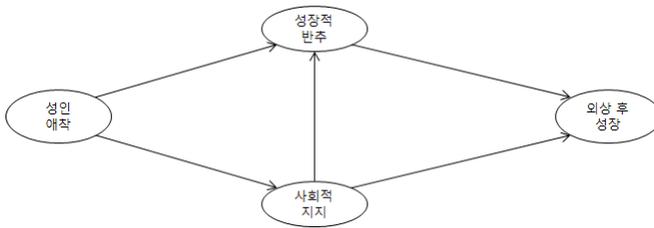
42) Cohen, S.·Wills, T. A., "Stress, social support and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1985.

43) Silver, R. L.·Wortman, C. B., "Coping with undesirable life events", In J. Garber·M. E. P. Seligman (Eds.) *Human Helplessness*, New York: Academic Press, 1980.

44) Weiss, T., "Posttraumatic growth in women with breast cancer and their husbands: An intersubjective validation study",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러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인지적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Calhoun과 Tedeschi⁴⁵⁾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고통이 조절되고 줄어들면 자동적인 인지적 처리과정인 침습적 반추보다 의도적 반추를 더 많이 하여, 사건에 대해 의미를 찾는 인지처리 과정이 더 가속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기도 하지만 개인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그 고 인한 정서적 고통을 다루기 위한 의도적 반추를 촉진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6.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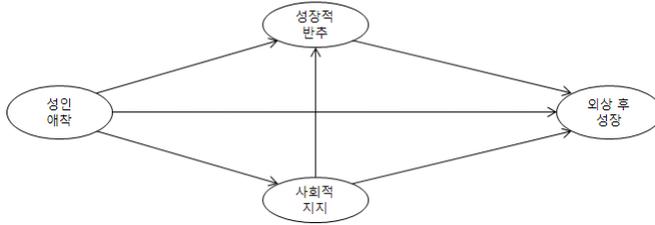


<그림 1> 가설모형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가설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불안정 애착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와 사회적 지지가 완전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지지가 의도적 반추를 부분 매개하여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모형이다. 그리고 의도적 반추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안정 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경로를 추가하여 불안정 애착과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의도적 반추와 사회적 지지가

20(2), 2002.

45) Calhoun, L. G.·Tedeschi, R. G.,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Expanded framework. In L. G. Calhoun·R. G. Tedeschi (Eds.),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Mahwah, NJ: Erlbaum. Associates, 2006.



<그림 2> 경쟁모형

부분 매개하는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경쟁모형은 <그림 2>와 같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이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571부의 자료 중 외상 경험이 없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외상 경험의 주관적 심각도가 전체 평균치(M=5.3)보다 높다고 평가한 269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외상 사건에 대한 주관적 심각도를 반영한 것은 Calhoun과 Tedeschi의 연구⁴⁶⁾를 근거로 외상의 객관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기준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연구대상의 분포는 남자는 145명(54.0%), 여자는 123명(46.0%)이며 40대 이상 80명(29.7%), 30대 68명(25.3%), 20대 77명(28.9%), 10대 43명(16.1%)이었다.

46) Calhoun, L. G.·Tedeschi, R. G.,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Expanded framework", In L. G. Calhoun·R. G. Tedeschi (Eds.),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Mahwah, NJ: Erlbaum. Associates, 2006.

2. 측정도구

1) 불안정 애착 검사

이 검사는 Fraley, Brennan 및 Waller⁴⁷⁾가 개정한 친밀 관계 검사 개정판(ECR-R)을 김성현⁴⁸⁾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이다. 이 검사는 성인 애착의 독립적인 두 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측정하는 각각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 애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착불안은 관계에 대한 지나친 몰두 혹은 버림받는 것과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며, 애착회피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에게 의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이 검사의 신뢰도(Cronbach α 값)는 애착불안 .92, 애착회피 .81, 전체 .86으로 나타났다.

2) 의도적 반추 검사

외상 사건과 관련된 성장적이고 의도적인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Cann 등⁴⁹⁾이 개발하고 타당화된 사건-관련 반추 척도(ERRI)를 유란경⁵⁰⁾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 중 의도적 사고를 사용하였다. 의도적 반추 검사의 문항은 ‘그 경험이 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했다.’, ‘스스로 그 사건에 대해 느낀 감정들을 다루려고 애썼다.’ 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도적 반추를 자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

47) Fraley, R. C.·Brennan, K. A.·Waller N. G.,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2000.

48) 김성현, 『친밀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49) Cann, A.·Calhoun, L.g.·Tedeschi, R. G.·Solomon, D. T., “Posttraumatic growth and depreciation as independent experiences and predictor of well-being”, *Journal of Loss and Trauma* 15, 2011.

50) 유란경, 『낙관성이 외상후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건-관련 반추 및 대처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출된 이 검사의 신뢰도(Cronbach α 값)는 .93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지지 검사

외상 경험 당시에 받았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⁵¹⁾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한 유희정⁵²⁾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이 가족, 친척, 친구 및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각한 정서적 지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측정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한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사랑과 이해 및 격려와 신뢰 그리고 관심 등의 정서적 지지(7문항), 칭찬이나 인정 등의 평가적 지지(6문항),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적 지지(6문항), 필요한 돈이나 물건 등을 제공해 주는 물질적 지지(6문항)의 총 4가지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이 검사의 신뢰도(Cronbach α 값)는 정서적 지지 .92, 평가적 지지 .91, 정보적 지지 .92, 물질적 지지 .87, 전체 .97로 나타났다.

4) 외상 후 성장 검사

외상 후 성장 검사는 Tedeschi와 Calhoun⁵³⁾이 개발한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를 송승훈⁵⁴⁾이 한국판으로 번안 및 수정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검사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외상 후 성장 검사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상 경험 이후 긍정적인 변화의 정도를 6점 Likert 방식으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K-PTGI는 대인 관계의 깊이 증가(5문항), 자기 지각의 변화(6문항),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3문항) 영적·종교적 관심의

51) 박지원,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52) 유희정,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53) Tedeschi, R. G.·Calhoun, L. G.,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1996.

54) 송승훈,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GII)의 신뢰도와 타당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증가(2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이 검사의 신뢰도(Cronbach α)는 대인 관계의 깊이 증가 .82, 자기 지각의 변화 .88,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78,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59, 전체 .91로 나타났다.

5) 외상 경험 질문지

주요 외상 사건들을 16가지 항목으로 제시하여 외상 경험의 종류와 시기, 그리고 외상 사건의 주관적 고통을 측정하였다. 이는 Tedeschi와 Calhoun⁵⁵⁾의 PTGI 개발 연구에서 측정된 사건 목록과 송승훈의 연구⁵⁶⁾에서 사용된 항목들을 근간으로 한국현실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보완한 것이다. 외상 사건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성추행 및 성폭력, 이혼 및 별거, 전쟁 혹은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 학창 시절의 따돌림과 폭력, 사회생활에서의 따돌림, 어린 시절의 학대, 집단적 갈등, 범죄 피해, 실직 및 은퇴, 학업 및 과업 문제, 재정적 어려움, 본인의 질병, 가족 및 가까운 사람의 질병, 사고 및 상해, 자연 재해 등으로 구분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찰변인들의 기초통계치 및 상관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였다. 둘째, 잠재변인인 불안정 애착, 의도적 반추, 사회적 지지, 외상 후 성장 간의 구조적 관계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0.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1단계에서는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잠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모형을 분석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계수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장 간명하고 적합도 지수가 높은 모형을

55) Tedeschi, R. G., Calhoun, L. G.,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 1996.

56) 송승훈,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GII)의 신뢰도와 타당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최종 구조적 모형으로 선택하기 위해 χ^2 , GFI,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와 경쟁모형을 채택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AIC를 추가하여 평가하였다. 넷째, 최종모형을 확정된 후, 각 변인들 간에 존재하는 경로의 의의와 설명력(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을 검증하였다. 이때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은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구조적 관계모형의 모든 모수추정치들의 표본분포를 추정하여, 근사적인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유의확률을 구하는 유용한 방법이다.⁵⁷⁾

IV. 연구결과

1. 기초분석

불안정 애착, 의도적 반추, 사회적 지지, 외상 후 성장의 주요 관찰변인들 간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관찰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서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그리고 관찰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모든 값이 왜도는 2.0을, 첨도는 7.0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포 조건을 충족하므로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표 1> 관찰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N=269)

	a1	a2	b1	b2	c1	c2	c3	c4	d1	d2	d3	d4
a1												
a2	.74**											
b1	-.47**	-.45**										
b2	-.63**	-.66**	.64**									
c1	-.34**	-.26**	.17**	.25**								
c2	-.39**	-.18**	.32**	.35**	.18**							
c3	-.30**	-.40**	.28**	.30**	.30**	.02						

57) 김대업, 『AMOS A TO Z』, 서울: 학현사, 2008.

c4	-.31**	-.23**	.24**	.27**	.25**	.31**	.39**				
d1	-.18	-.04	.52**	.29**	.29**	.66**	.33**	.24**			
d2	-.27**	-.10**	.49**	.29**	.35**	.58**	.45**	.34**	.32**		
d3	-.18	-.08	.35**	.25**	.26**	.35**	.55**	.23**	.55**	.52**	
d4	-.08	-.16**	.29**	.12**	.04	.31**	.43**	.41**	.38**	.34*	.40**
M	3.10	3.04	2.57	2.33	3.63	3.76	3.70	3.46	3.98	4.17	4.08
SD	1.17	1.31	.97	.94	.84	.85	.87	.89	.99	1.03	1.03
예도	.29	.40	.37	.74	.52	.49	.61	.42	-.61	-.78	-.68
침도	-.29	-.15	-.27	.56	.37	.16	.40	.08	.39	.76	.63

불안정 애착: a1. 애착불안, a2. 애착회피 / 의도적 반추: b1. 의도적 반추 1, b2. 의도적 반추 2 / 사회적지지: c1. 정서적지지, c2. 평가적지지, c3. 정보적지지, c4. 물질적지지 / 외상 후 성장: d1. 대인 관계의 깊이증가, d2. 자기 지각의 변화, d3.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d4. 영적·종교적 관심의 증가

**p<.01

2. 측정모형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각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인 불안정 애착, 의도적 반추, 사회적 지지, 외상 후 성장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잠재변인과 관찰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그 관계의 성립 여부를 알아보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검증 과정은 측정모형의 적합도 여부를 알아보는 것으로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GFI	TLI	CFI	RMSEA
기준	확률값 .05 이상	.9 이상	.9 이상	.9 이상	.05~.08 양호
측정값	289.126 (df=48, p=.000)	.930	.917	.935	.069

적합도 지수 확인결과, χ^2 은 289.126(df=48, p=.000), GFI는 .930, TLI는 .917, CFI는 .935, RMSEA는 .069로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에 적합하였으므로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3.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신뢰롭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불안정 애착, 성

<표 3>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지수	χ^2	GFI	TLI	CFI	RMSEA	AIC
기준	확률값 .05이상	.9 이상	.9 이상	.9 이상	.05~.08 양호	낮을 수록
가설모형	297.545 (df=39, p=.000)	.920	.920	.945	.066	377.523
경쟁모형	297.856 (df=38, p=.000)	.925	.919	.937	.061	383.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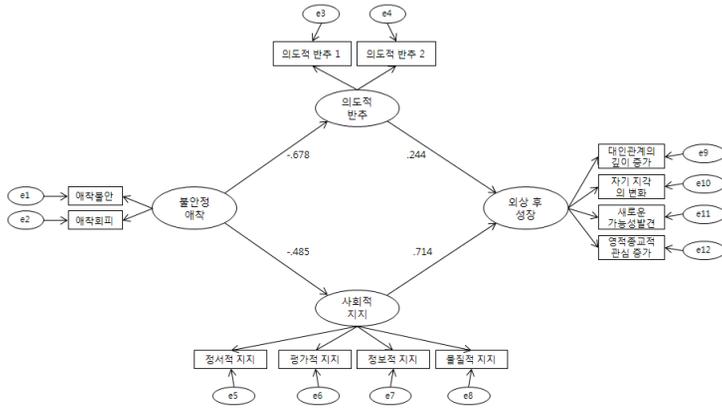
장적 반추, 사회적 지지, 외상 후 성장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았다.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를 위해 각 모형 간의 χ^2 값의 차이를 비교하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의 GFI, TLI, CFI, RMSEA 값은 우수한 모형의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모형을 비교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는 AIC를 추가하여 비교하였다. AIC는 모형의 적합도 평가에 있어서 간명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통계적 적합도 및 추정치 모수의 수를 고려한다. AIC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의 AIC값을 비교한 결과, 가설모형의 AIC는 377.523, 경쟁모형의 AIC는 383.128로 가설모형이 더 간명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가설모형에서 설정한 경로 중 사회적 지지에서 의도적 반추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에서 의도적 반추를 제거하여 모형의 간명화를 시도하였다. 가설모형과 사회적 지지에서 의도적 반추에 이르는 경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지수	χ^2	GFI	TLI	CFI	RMSEA	AIC
기준	확률값 .05이상	.9 이상	.9 이상	.9 이상	.05~.08 양호	낮을 수록
가설모형	297.545 (df=39, p=.000)	.920	.920	.945	.066	377.523
수정모형	297.856 (df=40, p=.000)	.927	.927	.951	.062	373.350



* 경로계수는 표준화계수임

<그림 3> 최종 구조적 관계모형

가설모형과 수정모형의 χ^2 , GFI, TLI, CFI, RMSEA 값은 우수한 모형의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둘 또는 그 이상의 모형을 비교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는 AIC를 추가하여 비교하였다. 가설모형의 AIC는 377.523, 수정모형의 AIC는 373.350로 수정모형이 더 간명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정모형을 최종 구조적 관계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구조적 관계모형은 <그림 3>과 같다.

최종 구조적 관계모형의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기 위한 총효과(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분해는 <표 5>와 같다. 의도적 반추와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에 $p < .001$ 수준에서 각각 $\beta = .244$, $\beta = .714$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후 성장에 의도적 반추와 사회적 지지가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도적 반추보다는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안정 애착은 의도적 반추와 사회적 지지에 $p < .001$ 수준에서 각각 $\beta = .678$, $\beta = .465$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불안정 애착은 의도적 반추와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았을 때는 사회적 지지보다는 의도적 반추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 애착, 의도적 반추, 사회적 지지의 직·간접 효과

변 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불안정 애착 → 의도적 반추	-.678	-	-.678
불안정 애착 → 사회적 지지	-.485		-.485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244		.244
사회적 지지 → 외상 후 성장	.714		.714
불안정 애착 → 외상 후 성장		-.644	-.644

<표 6>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간접효과의 상세분해

경로	간접효과 크기
불안정 애착 →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성장	-.165
불안정 애착 → 사회적 지지 → 외상 후 성장	-.346

마지막으로 불안정 애착은 외상 후 성장에 -.644 만큼의 간접효과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의도적 반추와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상세 분쇄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간접효과는 잠재변인들 간의 직접효과를 곱한 것이다.

간접효과 중에서 ‘불안정 애착 → 의도적 반추 → 외상 후 성장’의 간접효과는 -.165이었고, ‘불안정 애착 → 사회적 지지 → 외상 후 성장’의 간접효과는 -.346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불안정 애착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안정 애착이 의도적 반추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외상 경험의 과정에서 불안정 애착, 의도적 반추, 사회적 지지, 외상 후 성장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가설모

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최종 구조적 관계모형으로 채택하고, 불안정 애착, 의도적 반추, 사회적지지, 외상 후 성장 간의 구조적 관계 및 상대적 영향력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 문제에 따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 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불안정 애착이 의도적 반추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불안정 애착이 높을수록 의도적 반추를 덜 하게 되며 결국에는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불안정 애착의 수준이 낮을수록 의도적 반추를 더 많이 하게 되며 결국 외상 후 높은 수준의 성장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정 애착이 의도적 반추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안정 애착이 안전한 피난처와 안정 기반을 제공하며, 생리적 각성을 조절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외부 세계는 물론 내적 세계를 탐색하는 능력을 촉진한다는 Allen⁵⁸⁾의 이론적 예측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안정 애착을 통해 형성된 역기능적인 내적 작동 모델이 외상 경험 시 부정적 감정을 촉진시켜 외상 사건에 대한 인지적 처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애착이론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외상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외상 후 긍정적인 변화에 인지적 대처가 중요한 변인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의도적 반추가 사건을 이해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반복적이고 목적성이 있는 사고라는 Calhoun와 Tedeschi의 견해⁵⁹⁾는 물론 외상 사건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인지적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이를 통해 성장이 일어난다는 Taylor의 제안⁶⁰⁾을 지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지적 과정 없이 성장을 보고한 사람들은 실제로 성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인지적 과정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성장이 실제

58) Allen, J. G.,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2n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y Publishing, Inc, 2005.

59) Tedeschi, R. G.·Calhoun, L. G.,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 2004.

60) Taylor, S. E., "Adjustment to threatening events: A theory of cognitive adaptation", *American Psychologist* 38, 1983.

적 성장이라는 McCullough 등⁶¹⁾과 Weinrib 등⁶²⁾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결국 높은 수준의 의도적 반추를 하게 되면 개인은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지각하게 해 주는 방식으로 심각한 삶의 위기상황을 다루게 되고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기회가 커진다. 따라서 의도적 반추와 같은 기능적인 인지적 대처가 불안정 애착이 높은 사람들이 외상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외상 후 성장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즉, 의도적 반추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상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불안정 애착 그 자체로 인해 외상 후에 고통을 경험하게 하기보다는 적응적인 대처를 시도하고 더 높은 수준의 성장에 이르게 할 것이다.

둘째, 불안정 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불안정 애착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불안정 애착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덜 하게 되며, 결국에는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불안정 애착의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하게 되며, 결국 외상 후 높은 수준의 성장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성인 애착 불안이 사회적 지지를 완전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불안정 애착이 높을 때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제안이 가능하다.

그리고 불안정 애착이 사회적 지지에 부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외상 후 사회적 지지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애착 유형과 관련이 있다는 Bernnan 등⁶³⁾의 제안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애착은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방식과 외부세계와 내부세계

61) McCullough, M. E.·Root, L. M.·Cohen, A. D., "Writing about the benefits of an interpersonal transgression facilitates forgiven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 2006.

62) Weinrib, A.·Rohanson, N. E.·Johanson, E. L.·Lutgendeorf, S. K., "The assessment and validity of stress-related growth in", 2006.

63) Bernnan, K. A.·Clark, C. L.·Shaver, P. R.,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W.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1998.

에 관한 탐색 능력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안정 애착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안전한 기반을 발견하고 성공적으로 가까운 관계들을 형성하는 개인의 능력을 만든다. 따라서 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할 것이라는 가정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기능적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중요한 지표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대처방식의 효율성과 심리적 신체적 안녕에 대한 예언적 역할을 한다는 Cohen 과 Rodriguez의 견해⁶⁴⁾를 지지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상태에 대한 예측과 안정을 가져다주고 자기 가치감을 높여주어 부정적인 경험이나 심신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⁶⁵⁾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외상 경험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조절하여 성장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⁶⁶⁾ 이는 사회적 지지가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여 적응하게 하는데 긍정적 자원임을 밝힌 Silver와 Wortman의 경험적 연구⁶⁷⁾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결국 스트레스 상황에서 강한 지지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 외상에 잘 대처하고 적응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불안정 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의도적 반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정서적 고통을 완화시켜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의도적 반추를 활성화시켜 외상 경험의 의미를 찾는다는 연

64) Cohen, S.·Rodriguez, M. S., "Pathways linking affective disturbance and physical disorders", *Health Psychology* 14, 1995.

65) Cohen, S.·Wills, T. A., "Stress, social support and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1985.

66) Calhoun, L. G.·Tedeschi, R. G.,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Expanded framework", In L. G. Calhoun·R. G. Tedeschi (Eds.),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Mahwah, NJ: Erlbaum. Associates, 2006.

67) Silver, R. L.·Wortman, C. B., "Coping with undesirable life events", In J. Garber·M. E. P. Seligman (Eds.) *Human Helplessness*, New York: Academic Press, 1980.

구결과들⁶⁸⁾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의도적 반추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의도적 반추가 개인 내적으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 신념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인지적 도식을 갖는 것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과 같은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불안정 애착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안정 애착이 의도적 반추를 매개로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정 애착과 외상 후 성장 간에 사회적 지지의 간접효과는 $-.346$ 으로 의도적 반추의 간접효과 $-.165$ 보다 컸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애착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의도적 반추보다 더 중요한 매개 변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외상 경험 과정에서 성인 애착 불안 수준이 높더라도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탐색을 통해 외상 후 성장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외상 과정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경험적 연구가 갖는 이론적·상담적 측면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성인 애착의 정서조절 모델을 바탕으로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의도적 반추와 사회적 지지의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성인 애착 불안의 정서조절 모델이 구체적으로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경로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인지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된 기존 외상 연구의 이론적 모형에서 정서조절 기제인 성인 애착 불안의 영향에 대한 가설을 보완

68) Calhoun, L. G.·Tedeschi, R. G.,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Expanded framework", In L. G. Calhoun·R. G. Tedeschi (Eds.),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Mahwah, NJ: Erlbaum. Associates, 2006; Weiss, T., Posttraumatic growth in women with breast cancer and their husbands: An intersubjective validation study.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20(2), 2002.

함으로써 외상 연구의 영역을 인지적이며 정서적인 과정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상담적 측면에서 외상에 대한 개입에서 기존에는 증상을 감소시켜 이전 기능 수준으로 회복을 도모하는 병리적인 접근과 함께 증상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증상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내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성장 지향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시각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상담 현장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외상 경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애착의 안정성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내담자들이 상담자와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애착 관계와 지지적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자기 감정의 균형과 자존감 및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내담자들이 의도적인 반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적 개입으로 마음챙김에 기초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마음챙김에 기반을 둔 인지치료, 수용-전념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지지가 빈약한 내담자의 경우 이를 조성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외상 상담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인간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적 지지체계와 안정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애착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예방적인 상담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첫째, 외상 당시 외상 심각도가 표집 대상의 평균이상인 자료만을 분석하였으나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각한 피험자들을 포함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외상 경험의 분포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외상 스트레스가 심각한 임상 집단은 물론 외상 종류, 횟수, 기간, 시기, 치료 경험 등 다양한 표집을 통해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연구 대상들의 외상 경험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종단적 설계에 기초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안정 애착, 의도적 반추, 사회적지지, 외상 후 성장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오차를 줄이고 실제에 적합한 가설을 찾아내는 좋은 양적 연구 방법이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와 성장의 구체적인 기제 및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질적 연구 방법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성인 애착 불안이 외상 후 스트레스와 성장에 영향을 주는 과정의 평가에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화적 독특성이 반영된 적도의 개발을 통해 다양한 심리적 측면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대업, 『AMOS A TO Z』, 서울: 학현사, 2008.
- 김성현, 「친밀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진수, 서수균, 「친밀한 관계경험과 성장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2011.
- 박지원,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송승훈,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PGTT)의 신뢰도와 타당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유란경, 「낙관성이 외상후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건-관련 반추 및 대처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이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유희정,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Allen, J. G.,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2n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y Publishing, Inc, 2005.
- Arikan, G., *The Role of Attachment in Emotion Regulation of Traumatic Stress*, University of Southampton, 2011.
- Bartholomew, K.·Horowitz, L. M.,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1991.
- Barrett, T. W.·Scott, T. B., “Development of the grief experience questionnaire”, *Suicide & Life Threatening Behavior* 19, 1989.
- Bernnan, K. A.·Clark, C. L.·Shaver, P. R.,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W.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1998.
- Carver, C. S.·Scheier, M. F.·Weintraub, J. K.,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989.

- Calhoun, L. G.·Tedeschi, R. G., *Facilitating post-traumatic growth: A clinician's guid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9.
- Calhoun, L. G.·Cann, A.·Tedeschi, R. G.·McMillen, J. C., "A correlational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religion, and cognitive processing",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 2000.
- Calhoun, L. G.·Tedeschi, R. G.,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Expanded framework", In L. G. Calhoun·R. G. Tedeschi (Eds.),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Mahwah, NJ: Erlbaum Associates, 2006.
- Cann, A.·Calhoun, L.g.·Tedeschi, R. G.·Solomon, D. T., "Posttraumatic growth and depreciation as independent experiences and predictor of well-being", *Journal of Loss and Trauma* 15, 2011.
- Cohen, S.·Rodriguez, M. S., "Pathways linking affective disturbance and physical disorders", *Health Psychology* 14, 1995.
- Cohen, S.·Wills, T. A., "Stress, social support and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1985.
- Dekel, R., "Posttraumatic distress and growth among wives of prisoners of war: The contribution of husband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wives' own attachments", *Th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 2007.
- Fairbank, J. A.·Ebert, L.·Costello, E. J., *Epidemiology of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D. J. Nutt·J. R. T. Davidson·J. Zohar (Ed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iagnosis, management*, 2000.
- Fraley, R. C.·Brennan, K. A.·Waller N. G.,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2000.
- Hazan, C.·Gur-Yaish, N.·Campa., What does it mean to be attached? In J. A. Simpson·W. S. Rholes (Eds), *Adult attachment*, New York: Guildford Press, 2004.
- Helgeson, V. S.·Reynolds, K. A.·Tomich, P. L., "A meta analytic review of benefit finding and grow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 2006.
- Linley, P. A.·Joseph, S.,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1), 2004.
- Lopez, S. J.·Snyder.·C. R.,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PA:Washington, D. C, 2004.
- McLewin, L. A.·Muller, R. T.,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in the prediction of psychopathology among young adults with and without a history of physical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30, 2006.
- Main, M.·Solomon, J., “Discovery of an insecure-disorganized/disoriented attachment pattern”, In M. W. Yogman·W. Michael·T. B. Brazelton (Eds.), *Affective development in infancy*, Westport, CT: Ablex Publishing, 1985.
- McCullough, M. E.·Root, L. M.·Cohen, A. D., “Writing about the benefits of an interpersonal transgression facilitates forgiven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 2006.
- McMillen, H., “The adapting healer: Pioneering through shifting epidemiological and sociocultural landscapes”, *Social Science & Medicine* 59(5), 2004.
- Mikulincer, M.·Shaver, P. R., *Ment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security: Theoretical foundation for positive social psychology*, In M. W. Baldwin (Ed.), *Interpersonal cognition*, New York: Guilford Press, 2005.
- Mikulincer, M.·Shaver, P. R.,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2007.
- Mikulincer, M.·Shaver, P. R., “An attachment perspective on psychopathology”, *World Psychiatry* 11, 2012.
- Nolen-Hoeksema, S.·Parker, L.·Larson, J., “Ruminative coping with depressed mood following 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994.
- Salo, A. J.·Qouta, S.·Punamaki, R. L., “Adult attachment, post traumatic growth and negative emotions among former political prisoners”, *Anxiety, Stress and Coping* 18(4), 2005.
- Sarason, A. B.·Pierce, G. R.·Sherin, E. N.·Sarason, I. G.·Waltz, J. A.·Popper, L.,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working models of self and actual o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001.
- Silver, R. L.·Wortman, C. B., “Coping with undesirable life events”, In J. Garber·M. E. P. Seligman (Eds.) *Human Helplessness*, New York: Academic Press, 1980.

- Taylor, S. E., "Adjustment to threatening events: A theory of cognitive adaptation", *American Psychologist* 38, 1983.
- Tedeschi, R. G.·Park, C. L.·Calhoun, L. G.,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issues. In R. G. Tedeschi·C. L. Park·L. G. Calhoun (Ed.), *Posttraumatic growth: Positive changes in the aftermath of Crises*, USA: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1998.
- Tedeschi, R. G.·Calhoun, L. G.,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 2004.
- Weinrib, A.·Rohanson, N. E.·Johanson, E. L.·Lutgendorf, S. K., "The assessment and validity of stress-related growth in", 2006.
- Weiss, T., "Posttraumatic growth in women with breast cancer and their husbands: An intersubjective validation study",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20(2), 2002.
- Yalom, L. d.·Lieberman, A., "Bereavement and heightened existential awareness", *Psychiatry* 54. 1991.
- Zoellner, T.·Maercker, A., "Posttraumatic growth in clinical psychology: A critical review and introduction of a two component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 2006.

Abstract

The Effect of Insecure Attachment on Posttraumatic Growth: Mediating Effect of Intentional Rumination and Social Support In Jeju

Ha, Jin-Eu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insecure attachment, intentional rumination, social support, posttraumatic growth. Participants were 269 college students and general adults in Jeju, who had experienced trauma and whose subjective severity of the traumatic experience was reported to be above average.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AMOS 20.0 was employ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secure attachment has effect on posttraumatic growth through intentional rumination indirectly. Second, insecure attachment has effect on posttraumatic growth through social support indirectly. Third, social support has no effect on intentional rumination. Fourth, The effect of insecure attachment on the post-traumatic growth through social support was relatively greater than the effect of insecure attachment on the posttraumatic growth through intentional rumination.

*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part-time lecturer.

Key Words : trauma, attachment, posttraumatic growth, intentional rumination, social support

교신 : 하진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 1동 1437-1번지
(E-mail : hako1@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3. 08. 30.

심사완료일 2013. 10. 04.

게재확정일 2013. 10. 23.